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明會
 編輯人 金崙會
 印刷人 金鳳會

發行處
 서울·東大門區徽慶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244-3717
 對善口座：010983-31-0513119
 私書函：서울清涼郵遞局137號

海東名將傳 (忠武公編) (2)

大提學文獻公 洪良浩 原作

(진호에서 계속)

김시민은 늘 군사들에게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 함께 나라를 위하여, 죽자고 말하며 두려워하였다. 왜적은 진주성을 포위한다. 사방에 진을 치고 수많은 포수들을 동원하여 사납게 총을 쏘았다. 성안의 군사들은 죽기를 기하고 죽을막아 싸웠는데 김시민은 몸소 수장(水漿)을 들고 다니면서 군사들의 기질을 면하게 하고, 총알이 빗발같이 쏟아져도 이를 무릅쓰고, 서서 울리이지 않았다. 이때 김시민은 울면서 군사들을 이렇게 타일었다. 『만약 이 성을 보전하지 못하면 안에 있는 친백 명의 무숨은 다 적도들의 창칼아래 귀신이 될 것이다.』

그러자 군사들은 죽기를 기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싸움이 오래 계속되자, 화살이 다 떨어졌다. 김시민은 총을 타고 성을 내려가서 빨리 감사에게 알리려 하였으나, 그것이 어렵게므로 사람에게 증한 상을 주어, 이를 사오게 하려고, 아전 하경해(河景海)에게 부탁하였다. 하경해는 밤의 어둠을 타서 가만히 성을 넘어 나가서 진 화살 백여 부를 구해 가지고 돌아왔으므로 성안에서는 계속하여 화살을 쓸 수 있었다.

진주성은 적에게 포위되어 여러 날 구원군이 오지 않았으므로 성안에는 오�히려 쓸쓸하고 그 장수 심대승(沈大承)으로 조용한 형편이었다. 김시민은 그 아내와 함께 친히 술과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군사들을 먹이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군사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마음속으로 죽기를 기하며 싸울 것을 다짐하였다. 이때 왜적들은 깃발과 일산을 벌려 세우고, 잠옷이나 모자를 부장을 피이하게 꾸며 햇빛에 번득이고 바람에 날려 눈이 부시도록 으리으리한 꼴이었다. 왜적은 적장 여섯 명으로 하여금 구역을 나눠서 진을 치고, 군사들을 두려워하며, 총을 쏘는 사람 수천 명을 산 위에 배치하고 실새 없이 총을 쏘니, 그 형세는 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것 같아 천지가 뒤집힐 듯 진동하였다. 김시민은 군사들로 하여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대포를 쏘고 고함을 치며 적의 공격에 대적하였다. 그리고 밤에는 악공(樂工)으로 하여금 성문의 위를 누각에 올라가 피리를 불고 악기를 타게 하여, 성안의 한가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때, 의병장 최강(崔綱)과 이달(李達)이 고성으로 달려와서 돕는데, 밤에 망신산(網陳山)으로 올라가서 화살을 버려 세우고, 소리를 지르며 부를 올리니 온 산이 진동하였다. 또 의병장 곽재우(郭再祐)는

(非賣品)
 이 회보는 通常會費 年間 2千원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償으로 配付 하오니 未納入한 宗親께서는 卽時에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관하여는, 군사들을 그 위에 올라가서 총을 쏘게 하였으며, 적이 이와 같이 공격 기구를 갖추고 쳐들어 오자, 김시민은 이에 대비하여 미리 불이 잘 붙는 종이 속에 화약을 싸서 마른 나무 속에다 넣고, 문이 서성 위에 나무를 놓고, 또 드문 드문 대포와 큰 돌을 벌려 놓고, 여자들은 큰 가마솥에 뜨거운 물을 끓이고 쇠를 달구어 놓아 두었다가 막았고, 또 천이 남쪽에 있는 군사와 연락 하였다.

그러자 왜적들은 크게 놀라 요란하여졌다. 이때 의병장 최강(崔綱)은 二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와서 도왔고, 김준민(金俊民)도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적을 단정성으로 쳐들어 가게 하였다. 이(丹城)에서 파하고, 한우장(韓後將) 정기룡(鄭起龍)은 적을 살천(薩川)에서 파하였다. 그런데 적장 우시 등원랑(羽柴藤元郎)은 군사를 나누어 우 리 원군이 오는 길을 차단 하려고 하였다. 김시민은 성안을 둘러싸고, 가려 놓고 있는데, 보물 그 안에 쌓아 놓았는데, 이는 군사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날이 밝은 다음에 보니 보루가 벌써 이루어져 있었다. 적은 또 대나무 사다리를 수천 개를 만들어 서로 비늘처럼 연결시켜 놓고, 그 위에 그물 자리를 덮어 많은 사람이 그 시체가 마치 바람에 산들 바람이 함께 거여 올라가는 것처럼 산대(山臺)를 만들어 성첩을 만들었다. 그리고 세승으로 된 산대(山臺)를 만들어 성첩

의 많은 군사를 어둠을 타서 잡자기 북쪽 성으로 육박하여 치게 하였다. 이때 북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다 놀라 물러서는 데, 만호(萬戶) 최덕량(崔德良) 등은 죽음을 무릅쓰고 막아 싸웠다. 그러자 물러섰던 군사들이 다시 다 모여들어 돌을 내리칠 리고, 불을 던지며 막았다. 날이 밝을 무렵에 좀 쉬게 되었는데, 이때는 나무솥도 돌도 기왓장도 거이 없어졌다.

이때 김시민은 장대에 올라 싸움을 두려하다. 적의 총알을 맞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러자 곤양군수 이광은 대신 장대에 올라 싸움을 두려하며, 왜적의 장수 한 사람을 쏘아 죽였다.

이날 왜장 우시 등원랑은 진주성을 뺏지 못할 것을 알고 비로소 포위를 풀고 군사들을 이끌고 물러갔는데, 적들은 약탈하였던 부녀자와 소와 말들을 내 버리고 도망하였다.

이때 김준민(金俊民)은 단성으로 부터 적을 쫓아 진주에 이르러 보니, 적은 벌써 포위를 풀고 창원으로 도망하였다. 또 최강(崔綱)은 적을 뒤쫓아 가서 많이 빼이고 많이 얻어가 신고 돌아왔다.

이때 김시민은 성안을 둘러싸고, 가려 놓고 있는데, 보물 그 안에 쌓아 놓았는데, 이는 군사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날이 밝은 다음에 보니 보루가 벌써 이루어져 있었다. 적은 또 대나무 사다리를 수천 개를 만들어 서로 비늘처럼 연결시켜 놓고, 그 위에 그물 자리를 덮어 많은 사람이 그 시체가 마치 바람에 산들 바람이 함께 거여 올라가는 것처럼 산대(山臺)를 만들어 성첩을 만들었다. 그리고 세승으로 된 산대(山臺)를 만들어 성첩

김시민은 이렇게 적을 물리치고 진주성을 끝내 지켰다. 그러나 적에게 남은 상처는 김시민이 다치지 않고 돌아왔다. 그 때에도 그의 나라를 위한 충성은 조금도 변치 않아, 정신이 들 때마다 머리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다.

3. 그의 충혼

김시민이 죽은 뒤 조정에서는 선무공신(宣武功臣)의 호를 내리고 상락군(上洛君)으로 봉하고 뒤에 영의정 상락 부원군(領議政上洛府院君)의 벼슬을 주고 충렬사(忠烈祠)를 세우고 충무(忠武)의 시호(諡號)를 주었다. (끝)

(다음 호에는 충무공 휘 응하(忠武公 諱應河)편을 게재합니다.)



진경사 중민사

祝發展

全南大學校工科學教授

翼元公派 金泰成

全南光州市龍鳳洞三〇〇
電話(校) 五五-〇〇-一一一八

美國辛羅里大洲立大學校
正教授·工學博士(컴퓨터)

按廉使公派 金光會

忠北槐山郡曾坪邑竹里

翼元公派 金奇爽

忠南保寧郡靑蘿面香泉里

翼元公派 金漢植

서울·城東區 下往十里洞
六三六一一

安東金氏大宗會 理事

翼元公派 金永太

蔚山市福山洞五九七-一三

司成公派 金常圭

서울·城東區馬場洞七九六-一七

遞信部 企劃管理室
企劃子算 担当官

按廉使公派 金君會

서울·鍾路區 서린洞一五四-一

(전호에서 계속)

지방에는 적설(積雪)은 적었으나 그들도 매일과 같이 눈이 내려서 찬 바람은 뺨골을 찌르는 듯하여 사람이나 말이나 다 같이 고생하였다. 원종은 一월五日 일행을 두 부대로 나누어 장정 일백명을 골라 선발대를 짜고, 원종 자신은 그 대열에 끼었다. 一월九일 저녁에 원종은 자기들을 맞아 들이기 위하여 동경에서 달려온 이장용(李藏用)·김방경(金方慶)등 수십기(數十騎)의 한 대열과 눈이 쌓인 들(野) 가운데서 서로 만났다. 출영(出迎) 나온 기마대(騎馬隊)는 두 줄로 갈라져 길 양편에 도열하고 원종을 가운데로 모신 대열이 그 곳을 통과하자 그 배후(背後)에서 그들은 원종의 대열과 합류하였다. 이장용(李藏用)과 김방경(金方慶)은 말을 달려 원종의 뒤를 따랐는데, 원종의 명령대로서 두 사람은 곧 원종과 말머리를 같이 나란히 하였다. 잠간 동안 주종(主從)의 사이에는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이장용이 강도를 출발한 것은 十一月二十一일 이어서, 원종은 이장용과는 四十여일만의 대면이 있었으나, 김방경(金方慶) 쪽은 六월에 강도를 떠났기 때문에 반년(半年)만의 대면이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 배산 같으나 무엇을 먼저 이야기할지 알 수 없었다. 여러가지 일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국가의 큰 동요를 여러가지 각도에서 눈으로 보아 자연히 동요되어 왔던 것이다.

風濤 (6) 井上靖 著 金崙會 譯

『그것은 무슨 일이 있던지 막 아내지 않으면 안될 문제입니다. 몽구도군의 고려에의 진주(進駐)는 고려의 북부(北部) 일대가 몽고의 직할지로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고려로서는 자기 영토를 잃어 버리게 됩니다. 몽구도군(軍)은 동정(東征)의 왕명을 받고 동경까지 와서, 지금 거기에서 최후의 출동명령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출동명령은 오늘 나을지 내일 나을지 가장 긴박(緊迫)한 상태에 있으나, 그것의 어찌된 오늘까지 나오지 않은 것은 왕(王)의 입조(入朝)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태자의 호소가 있었고 세조도 그것을 아무렇게나 물리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지금 상태로서는 세조의 생각은 고려에 진주(進駐)할려고 하는 것은 확

실히 결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일에는 누가 생각해도 이치에 통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최탄의 내부(內附)의 찬성을 이용해서, 임연(林衍)을 친다는 것을 핑계삼아 진주(進駐)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확실하진 않(侵略)행위로 보아도 좋습니(王)께서 세조를 만나서 조리(條理)있게 잘 말씀하신다면 세조로서도, 무리(無理)한 일은 하지 않고 진주(進駐)한다는 것은 멈추지 않을 수 없을 것(例外)이 되겠습니까. 이유는 이라고 사료합니다. 누가 호(下流)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김방경(金方慶)은 그와 같이 말하였다. 더듬 더듬 하는 말 속이었으나 평소의 논변(論辯)과는 달리, 그의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김방경(金方慶)은 이번의 일이고, 그의 삼분의 일을 잃는 다해도 그의 나라 이름 밑에 오직 손도

『이장용이여 그대는 울고 있는가?』 원종은 물었다. 이장용의 얼굴은 찡어있었는데, 눈물에 젖은 것이 눈(雪)물에 젖은 것인 줄을 몰랐을지 모르겠다. 이장용은 잠시 분간할 수 없었다. 『왜 울겠습니까. 이런 일로 울어서 되겠습니까. 아직 정말 해서 이장용은 눈물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장용은 이렇게 말하고, 김방경(金方慶)과 같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닦았다. 그로부터 이틀후인 十一月에 원종의 一행은 동경(遼陽)에 들어갔다. 동경의 성내(城內)·성외(城外)·한것없이 병마(兵馬)가 중서성사(中書省事)로 임명(任命)되어 있는 도렌카, 조벽(趙壁) 등의 무장(武將)들이 각(駐營)하고 있고, 그것과는 별도로 고려에의 출정(出征)명령을 받은 몽구도가 같은 출동(圖)에 편입(編入)된다 하여도 거기에서 고려인의 마음까지 애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金)방경은 그와 같이 말하였다. 『만일의 경우라도 중요하고 고사료합니다. 세조는 왕(王)께서 연도(燕都)에 들어가서서 알현(謁見)하는 것을 기다려서 군사(軍)를 고려에 침입(侵入)시킬(駐營)하고 있고, 그것과는 별도로 고려에의 출정(出征)명령을 받은 몽구도가 같은 출동(圖)에 편입(編入)된다 하여도 거기에서 고려인의 마음까지 애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金)방경은 그와 같이 말하였다.』

『이장용이여 그대는 울고 있는가?』 원종은 물었다. 이장용의 얼굴은 찡어있었는데, 눈물에 젖은 것이 눈(雪)물에 젖은 것인 줄을 몰랐을지 모르겠다. 이장용은 잠시 분간할 수 없었다. 『왜 울겠습니까. 이런 일로 울어서 되겠습니까. 아직 정말 해서 이장용은 눈물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장용은 이렇게 말하고, 김방경(金方慶)과 같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닦았다. 그로부터 이틀후인 十一月에 원종의 一행은 동경(遼陽)에 들어갔다. 동경의 성내(城內)·성외(城外)·한것없이 병마(兵馬)가 중서성사(中書省事)로 임명(任命)되어 있는 도렌카, 조벽(趙壁) 등의 무장(武將)들이 각(駐營)하고 있고, 그것과는 별도로 고려에의 출정(出征)명령을 받은 몽구도가 같은 출동(圖)에 편입(編入)된다 하여도 거기에서 고려인의 마음까지 애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金)방경은 그와 같이 말하였다.』

『이장용이여 그대는 울고 있는가?』 원종은 물었다. 이장용의 얼굴은 찡어있었는데, 눈물에 젖은 것이 눈(雪)물에 젖은 것인 줄을 몰랐을지 모르겠다. 이장용은 잠시 분간할 수 없었다. 『왜 울겠습니까. 이런 일로 울어서 되겠습니까. 아직 정말 해서 이장용은 눈물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장용이여 그대는 울고 있는가?』 원종은 물었다. 이장용의 얼굴은 찡어있었는데, 눈물에 젖은 것이 눈(雪)물에 젖은 것인 줄을 몰랐을지 모르겠다. 이장용은 잠시 분간할 수 없었다. 『왜 울겠습니까. 이런 일로 울어서 되겠습니까. 아직 정말 해서 이장용은 눈물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장용이여 그대는 울고 있는가?』 원종은 물었다. 이장용의 얼굴은 찡어있었는데, 눈물에 젖은 것이 눈(雪)물에 젖은 것인 줄을 몰랐을지 모르겠다. 이장용은 잠시 분간할 수 없었다. 『왜 울겠습니까. 이런 일로 울어서 되겠습니까. 아직 정말 해서 이장용은 눈물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장용이여 그대는 울고 있는가?』 원종은 물었다. 이장용의 얼굴은 찡어있었는데, 눈물에 젖은 것이 눈(雪)물에 젖은 것인 줄을 몰랐을지 모르겠다. 이장용은 잠시 분간할 수 없었다. 『왜 울겠습니까. 이런 일로 울어서 되겠습니까. 아직 정말 해서 이장용은 눈물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장용이여 그대는 울고 있는가?』 원종은 물었다. 이장용의 얼굴은 찡어있었는데, 눈물에 젖은 것이 눈(雪)물에 젖은 것인 줄을 몰랐을지 모르겠다. 이장용은 잠시 분간할 수 없었다. 『왜 울겠습니까. 이런 일로 울어서 되겠습니까. 아직 정말 해서 이장용은 눈물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장용이여 그대는 울고 있는가?』 원종은 물었다. 이장용의 얼굴은 찡어있었는데, 눈물에 젖은 것이 눈(雪)물에 젖은 것인 줄을 몰랐을지 모르겠다. 이장용은 잠시 분간할 수 없었다. 『왜 울겠습니까. 이런 일로 울어서 되겠습니까. 아직 정말 해서 이장용은 눈물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장용이여 그대는 울고 있는가?』 원종은 물었다. 이장용의 얼굴은 찡어있었는데, 눈물에 젖은 것이 눈(雪)물에 젖은 것인 줄을 몰랐을지 모르겠다. 이장용은 잠시 분간할 수 없었다. 『왜 울겠습니까. 이런 일로 울어서 되겠습니까. 아직 정말 해서 이장용은 눈물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장용이여 그대는 울고 있는가?』 원종은 물었다. 이장용의 얼굴은 찡어있었는데, 눈물에 젖은 것이 눈(雪)물에 젖은 것인 줄을 몰랐을지 모르겠다. 이장용은 잠시 분간할 수 없었다. 『왜 울겠습니까. 이런 일로 울어서 되겠습니까. 아직 정말 해서 이장용은 눈물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安東金氏大宗會 顧問 釜山地方檢察廳 蔚山支廳 支廳長 都評議公派 金泰祚 電話：48-5577

安東金氏大宗會 理事會長 都德獎學會 提學公派 金相學 釜山市釜山鎮區開琴洞 633-26A 1호 電話：94-3261

攄學公派 金相燮 서울·西大門區南加佐洞 一七五-一三三 典書公派 金大會 서울·中區墨井洞二 A.P.T 四〇三 清州稅務署 課長 按廉使公派 金仁默 清州市牛岩洞 二六九

工竣築增舍齋洞陵

서울市綜合民願室長 昌信 氏의 美舉에 힘입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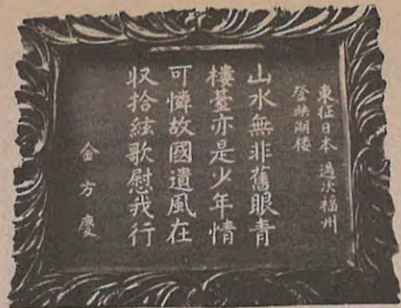
大韓僑道會 安東郡支部에서 지난 七月十七日 午前十二時에 安東市亭下洞(洛東江邊)에 所在한 映湖樓에서 安東郡守를 비롯한 儒林代表 四十餘名과, 六十餘名의 後孫들이 參席하여, 上洛君 忠烈公 詩板 揭板式을 嚴肅히 舉行하였다.

忠烈公께서는 七十歲 되시든 高麗 忠烈王 七年(一一二八) 辛丑 三月에 高麗軍都元帥로서 再次 日本征伐의 壯途에 올으셔서, 故鄉인 安東을 通過하시던 때 府民들이 배운 歡送宴에 參

지난 五月 十五日 부터 着工 한, 安東陵洞의 齋舍 增築工事는 八十八日間의 工程을 거쳐 八月十日에 完工하였다.

陵洞齋舍는 交通의 發達로 因해서 每年 參祭者가 增加하여 今年에는 百餘名을 헤아리게 되니 舊齋가 狹少하여 一夜連枕에 不便이 莫甚하기로 지난 四月二十二日 定期總會 時에 房二間을 增築할 計劃을 세우고 이에 대한 經費 四百萬원을 八四年度 豫算에 編成 附議한 바 滿場一致의 贊同을 얻어 着工 할려는 利那에 매 마침 現 서울市綜合民願室長인 都評議公派 昌信 氏의 本第가 新築한 지 얼마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든 用材가 現時에는 求하기 어려울 程度로 활용한데, 都市計劃上 不得已 撤去를 免치 못함으로 全体를 無상으로 獻納 하겠다는 自請을 받고, 五月三日에는, 緊急理事會를 召集하고 審議하여 이를 受諾하고 이에 대한 所要經費의 追加 更正키로 決意하였다.

이어서 華城郡宗人 郡事公派 世鋪氏에게 都給을 주고, 五月十五日 부터 破屋에 着手해서 自動車 十二輛을 運搬하고, 整地 建立 八月十日에 竣工하니,



忠烈公先祖東征時絕句一首 安東映湖樓上에 揭板 儒林代表와 後孫百餘名參席裡에

席해서서 「山水無非舊眼青, 樓臺亦是少年情, 可憐故國遺風在, 收拾絃歌慰我行」의 即興詩를 지으셨고 이 絶句一首는 映湖樓 壁上에 揭板되어 오랫동안 保存되어 왔었다.

그러나 其後 七百年의 歲月이 흘러 갔고, 江邊에 位置한 樓閣은 洪水의 汎濫으로 流失과 重建이 거듭되는 동안에 詩板도 같이 流失되고 말았었다는 데 이번엔 大宗會에서 安東儒道會에 建議, 協贊을 얻어 다시 揭板하였다.

(四頁에서 계속)

가 닭은, 아내를 취하는데, 同姓을 취하지 않는 것은 人倫의 分別을 두터이 하는 때 문이며, 이러한 까닭으로 魯公(昭公)은 吳에서 아내를 取하였고 晉侯(平公)은 四姬를 두었다고, 陳의 司敗(官名)와 鄭의 子產(公孫僑)은 심각하게 이를 나무랐다. 그런데 新羅에서는 同姓을 아내로 마지할 뿐 아니라, 兄弟의 子姪이나 姉妹의 從姊妹를 모두 아내로 맞으니, 비록 外國과는 서로 風俗이 다를지라도, 中國의 禮儀法 俗으로 裁量한다면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凶奴들은 그 어미를 烝(奸)하고, 아들 을 報(奸)하는 것은 이보다 더욱 甚한 일이라고 하였다.

子·納新王·卜好 末斯欣 (元榮記)

消息

○ 大宗會 會長(淸州大學校 總長) 明會 博士는, 美國 하와이에서 開催하는, 아세아 太平洋 反共聯盟 第三〇次 總會에 參席次 八月二十四일에 出國, 同會議에 參席한 四十四個國代表 앞에서 基調演說을 마치고, 九月二日 歸國하였다.

○ 遞信部 遞信金融企劃課長인 按廉使公派 君會氏는 七月五日 字로 遞信部 企劃管理室 企劃豫算 担当官으로 昇進하였다.

○ 榮州市 榮豐郡宗親會員 四十八名은 지난 八月十八日, 傳貫버스를 利用해서 楊平郡 楊西面 木枉里 翼元公山所 省墓, 大宗會館 訪問, 安養市 冠陽洞 文英公山所 省墓等 旅程을 마치고 當日 歸家하였다.

○ 陸軍大領에서 豫編되어 韓榮貿易會社 專務理事로 就任한 都評議公派 會秀氏는 지난 七月에 同社 副社長으로 昇進하였다.

○ 鎭川郡 宗親會員 四十七名은 지난 九月十六日 傳貫버스를 利用, 槐山郡 槐山面 陵村里의 충민사 參拜, 楊平 목왕리의 翼元公山所 省墓, 大宗會館 訪問, 安養市 冠陽洞 文英公山所 省墓等의 旅程을 마치고 當日 歸家하였다.

○ 平素에 大宗會 事業에 物心兩面으로 協助해 온 在日宗親(扶餘邑出身) 翼元公派 明會 氏께서 宿患으로 지난 九月에 別世하였다

○ 大宗會會長은 在日本 宗親 連絡部長으로 京都市 上京區 鞍馬口 大官西入 丸南에 居住하는 都評議公派 泰成(故 日秀氏 長子)氏를 위촉하였다.

陵洞齋舍增築竣工式奉行
案內

今番에 新築한 陵洞齋舍의 竣工式을 아래와 같이 奉行 하오니 諸宗께서는 掃萬 枉臨하시기 敬望하나이다.

아 래

日 時.. 一九八四年十一月一日(陰十月初九日)

場 所.. 新築 齋舍

忠烈公先祖享禮時

大宗會長 明 會 白



各種生花
꽃바구니
화분

迅速한 配達
低廉한 價格
宗親을 爲한 特別奉仕

香 田 園 藝
(향 전 원 예)

代表 金 在 均

住所: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44-26
중앙빌딩 106
電話: 783-3166 ~ 7, 725-1515

(전후에서 계속)

지금부터 약 80년 전인 서...

實은 「儒林」 鎮撫는 鄉校의...

「儒教」는 古來로 東洋道德의...

令 속에는 「全國의 鄉校」는...

一 九四五年乙酉 解放과 同時...

松亭 金洋 · 保閑堂 申叔丹 · 備...

齋成 倪 · 佔華齋 金宗直 · 蔡齋...

淨 · 花潭 徐敬德 · 休庵 白仁傑...

西厓 柳成龍 · 漢陰 李德馨 · 寒...

岡 鄭 遂 · 月沙 李延龜 · 明齋...

極 · 淸陰 金尚憲 · 寒暄堂 金...

遷位 祠堂에서 位版을 奉후한...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忠烈祠(忠愍公李鳳祥) 忠烈祠...



이 아니라 이 당시에 無數한...

은 舊株를 墨守하여 時勢의 推...

是 訓令의 全文이며 이 訓...

一、原住所 一、移轉地住所...

住所移轉事項報告依頼

現在 우리 宗親들은 京鄕各地에서...

一、姓名 所와 姓名을 記載해 주십시오.

忠翼公諱承用墓誌銘

天曆二年己巳歲三月甲戌 宣授宣武將軍管高麗 閣大提學上護軍金公奉表朝元賀 渡鴨綠江感疾于新安旅館是月庚辰靈柩乘 傳入京都殯於孤柳里私第越四月丙申葬于墨洞北山之麓嗚呼公諱承用永嘉人曾 祖皇正議大夫兵部尚書翰林學士充史館修撰官知制誥追封中書令諱孝印祖皇中 奉大夫都元帥推忠宣力靖難定遠功臣匡靖大夫三重大臣都僉議中贊上將軍判典 理事世子師上洛公諱方慶父皇奉翊大夫副知密直司事典法判書上護軍諱慎母皇 朝靖大夫司宰卿薛仁儉之女也公之為人沉重寡言溫和不直常怡怡如也長身斗膽 眞得宰相體居官清儉爲務元善於將人出將則與士卒同甘苦動得人心臨民則更不 敢欺民皆仰如父母入相則履正奉公平生交人淡若水憾不掛亡迺以脈黨之忌逆 志於先朝出牧完州州移刺蓋城府又遠移長興府靈光郡非人望也泊爲東藩兵馬使 兼監倉安集淮陽道 摩鎮合浦營兼慶尚全羅道巡問使是公望也嘗甫持風憲折獄 秋曹咸有令聞中外服其平公以門資年方十四直調天和寺真殿二十三登進士第二 十七帶弓箭入侍 皇元自衛尉注簿歷官通禮門祇候神虎衛長史秘書郎監察侍史 司宰少尹國子司業司憲掌令摠府議郎司憲執義判內府事議部典書同知密直事密 直使皆皆大學士上將軍階奉常中顯中正奉順通憲至匡靖大夫此其詳也公先媿僉 議贊成事元璿一女生二男一女一子曰厚今爲西部副令二子曰玟爲郎將女孀開城 判官柳之浣生子若千先公歿大護軍 資 監察侍史朴永堅女皆無後嗚呼年登 六十二年不謂殤官登金紫階官不謂卑爵齒則於公何歎之有哉但滿腹經綸大度不 得殿施於廟堂之上重爲三韓惜之二孤知予爲先君舊執血 誌濡淚滋毫爲之銘曰

鵝峰過遠 鴨水汪洋 公盛傳揚 永天不忘 千秋萬祀 中正大夫密直司左副代官三司右尹寶文閣提學知製教 李叔琪 述

忠翼公墓誌石은 國立博物館에 保管中이며 이原文은 朝鮮總督府에서 發行한 朝鮮金石誌에서 移錄하였음.

天曆二年乙巳歲三月 甲戌 宣授宣武將軍管高麗 閣大提學上護軍金公 實文閣 大提學 上護軍 金公 表文을 반들고, 元나라에 賀節使로 가 는 길에 鴨綠江을 건너서 患候 로 新安旅館에서 別世하여, 그 달 庚辰日에 靈柩를 서울 (開 城)로 옮겨서 孤柳里 自宅에 設殯하고 다음 달 四月 丙申에 墨洞 北山 기슭에 葬事지냈다. 嗚呼라! 公의 諱는 承用이 니 永嘉人이라. 曾祖는 元나라 벼들이 正議大夫 兵部尚書 翰 林學士 充史館修撰官 知制誥의 中書令에 追封된 諱 孝印이 며 祖父는 元나라 벼들이 中奉 大夫 都元帥이고 推忠宣力靖難 定遠功臣 匡靖大夫 三重大臣 都僉議中贊 上將軍 判典理事 世子師 上洛公인대 諱 方慶 이시다. 父親은 元나라의 奉翊 大夫 副知密直司事 典法判書 上護軍인 諱 慎이며, 母親은 元 나라 벼들 朝精靖夫 司宰卿인 薛仁儉의 따님이다. 公은 爲人 이 沈重하고 말이 적으며, 溫 和하고, 正直하고 恒常기쁘고 즐겨워 하는듯 하였다. 身長은 크고, 肝膽이 커서 참으로 宰 相의 體模를 지니고 있었다. 벼 들 살이 에서는 清白하고 儉素 하게 지냈으며 善을 根本 삼아 사람을 거느렸다. 淸으로 나 가서는 士卒들과 苦樂을 같이 하여, 그 行動으로서 人心을 嚴肅히 지키면서 刑曹의 일

을 決斷함에 모두 宗계 들러져 서 中外가 모두 그 公平함에 感服하였다. 公이 家門의 蔭德 으로 年芳 十四歲에 天和寺眞 殿에 뽑혔고, 二十三歲에 進士 試에 及第하고 二十七歲 에는 侍從 衛尉主簿에서 始作해서 벼들이 通禮門祇候·神虎衛長 史·秘書郎·軍簿左郎·都官正 郎·監察御史·司宰少尹·國子 司業·司憲掌令·總府議郎·司 憲執義·判內府事·議部典書· 同知密直事·密直使·皆館大學 士·上將軍을 지냈고 品階는 奉常大夫·中顯大夫·中正大夫 ·奉順大夫·通憲大夫·匡靖大 夫에 까지 이르니, 이는 그 事 實을 詳細하게 記錄함이다. 公이 먼저 僉議贊成事 元權의 長女를娶해서 二男一女를 낳 로다. 二女는 厚라 하여, 지 두 아드님은 내가 일찍 부터

○ 알림니다 ○

一九七八年 부터 申請을 接受한 大同譜는 出版과 同時에 三, 八〇〇選의 방대한 量이 計劃대로 頒布 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아직 引受하지 않은 宗親이 있어 數次나 督促書信 을 發送하여도 住所變更으로 돌아오는 狀態 로서 領狀의 終決을 보지 못하고 事務處理上 莫大한 支障이 되고 있어 오니 或 아시는 宗 親께서는 速히 連絡 引受케 해주시기 바랍 니다.

※ 萬苦에 來十月 末日까지 連絡이 없을 時는 取得不應으로 認定하고 希望하는 宗 親에게 引渡할 것이오니 諒知하시기 바랍 니다.

아 래

○ 大同譜未引受者 名單

派	申請當時 住所	氏名	子約金額	殘金
提	大田市 三省一洞 1206	完植	10,000원	40,000원
按	道峰區 水輪3洞 181-56	泰星	10,000	40,000
翼	冠岳區 奉天4洞 174-203	泰龍	30,000	20,000
"	大田市 大興2洞 452	英會	10,000	40,000
"	龍山區 山泉洞 68-6	泰聖	20,000	30,000
"	江南區 岩寺洞 546-1	鍾默	20,000	30,000

○ 派譜未引受者 名單

大司	江南區 瑞草洞 무지개 A.P.T. 5~211	正會	15,000	完
"	城北區 東山洞 4街 219	在溼	15,000	"

을 決斷함에 모두 宗계 들러져 서 中外가 모두 그 公平함에 感服하였다. 公이 家門의 蔭德 으로 年芳 十四歲에 天和寺眞 殿에 뽑혔고, 二十三歲에 進士 試에 及第하고 二十七歲 에는 侍從 衛尉主簿에서 始作해서 벼들이 通禮門祇候·神虎衛長 史·秘書郎·軍簿左郎·都官正 郎·監察御史·司宰少尹·國子 司業·司憲掌令·總府議郎·司 憲執義·判內府事·議部典書· 同知密直事·密直使·皆館大學 士·上將軍을 지냈고 品階는 奉常大夫·中顯大夫·中正大夫 ·奉順大夫·通憲大夫·匡靖大 夫에 까지 이르니, 이는 그 事 實을 詳細하게 記錄함이다. 公이 먼저 僉議贊成事 元權의 長女를娶해서 二男一女를 낳 로다. 二女는 厚라 하여, 지 두 아드님은 내가 일찍 부터

1985年度 카렌다주문개시

金鳳會

東瑞에서 製作한 50여종의 다양한 모델이 고객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東瑞 文化社 代表 表
東瑞 카렌다社 代表 表
凡一紙業印刷紙器工業社代表 表
安東金氏大宗會 理 事
釜山·慶南安東金氏宗親會長

서울 中區仁峴洞二街一九〇番地 보양상가아파트二〇四號 二六五—五三五—二七二—四八七三

仁川 北區佳佐洞 四六九—一 第五수출공단內 八三—一五四三·八六二—九四六一

釜山 北區周禮洞 一六〇—三三一 九二—八三九二·八三九七·八三九八 自宅電話·六七—三三三—

原稿募集

本報發展을 위하여 江湖諸宗의 歡迎하오니 다음 要領에 依하여 作成送 付해 주시면 採擇登載하겠읍니다.

一、論文 崇祖陸族과 倫理道德에 寄與 되는 內容

一、各派宗中 및 宗親會에서의 行事에 對 한 經過記事

一、宗親中에서 있었던 美談佳話 및 善行

一、職位의 陞進이나 異動事項, 海外旅 行關係 逸話

一、先祖에 關係되는 傳說

一、其他 宗親들에게 알리고 싶은 事項